

지역 소식통

부안군, 7월 정기본

재산세 39억원 부과

부안군은 올해 7월 정기본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26,485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주택분의 경우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ATM)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etax), 인터넷 등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재원으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 완료

고창군은 총사업비 4억원을 투입해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성 후 15년 이상이 넘은 북분자 농공단지 보도블록 2060㎡(연장 1170m)와 흥덕 농공단지 보도블록 3290㎡(연장 1460m)를 정비했다. 또 소공인 정자 교체와 조경 식재를 함께 추진해 보다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을 만들었다.

특히 철거된 보도블록 가운데 재사용 가능한 자재는 읍·면 수요조사를 거쳐 필요한 마을에 무상제공해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과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

현재 흥덕 농공단지에는 19개 업체(고용인원 287명)가 입주해 있으며 분양이 완료된 상태다. 북분자 농공단지에는 12개 업체(고용인원 434명)가 입주해 가동 중이며 현재 77%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에서 인천공항 직통으로'

부안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천군 경유 노선... 21일부터 하루 왕복 3회 본격 운영

부안군이 오는 21일부터 부안시외버스터미널과 인천국제공항을 직접 연결하는 고속버스 신규 노선 운영을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설 노선은 해외여행 수요 증대에 맞추어 그동안 타 지역을 거쳐 환승해야 했던 군민과 방문객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안-인천공항 노선은 부안시외버스터미널을 출발해 서천군을 경유한 뒤 인천공항 제1터미널(T1)과 제2터미널(T2)까지 하루 왕복 3회 운행한다.

운행 시간은 부안 출발 기준으로 △오전 2시 10분 △오후 1시 10분 △오후 5시 10분이며, 인천공항 제2터미널 출발 기준으로는 △오전 8시 10분 △오전 10시 50분 △오후 6시 30분이다.

운행 차량은 전 좌석 우등버스가 투입돼 승객들에게 쾌적한 이동 환경을 제공하며, 승차권은 모바일 앱 '티머니GO'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소요 시간은 상행선(부안 출발~제2터미널 도착) 기준 약 3시간 50분이 소요될 예정이나, 도로 교통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구절초 꽃축제 먹거리 품질 높인다

10월 축제 앞두고... 먹거리 판매장 입점 업체 45곳 선정

정읍시가 오는 10월 열리는 제19회 구절초 꽃축제를 앞두고 먹거리 판매장 입점 업체 45곳을 최종 선정했다.

시는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축제 판매장 참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음식과 제품의 품질을 사전 검증하는 품평회를 진행했다. 평가는 식당, 이동식 음식 판매 차량(푸드트럭), 특산물 먹거리 판매장 등 세 부문으로 나눠 실시됐다. 심사위원들은 맛, 가격, 재료, 차별성, 소비 선호도를 꼼꼼하게 따져 우수 업체를 가려냈다.

이번 행사에는 정읍 지역 81개 마을, 단체, 업체가 참여해 열띤 경쟁을 펼

쳤다. 참가자들은 각양각색의 차별화된 음식과 먹거리를 선보이면서 최신 유행(트렌드)을 상회 공유했다. 참여 의식을 한층 높였다.

심사에는 전북과학대학교 심성진 교수를 비롯한 사단법인 자연식생활문화원 김현희 이사장 등 전문가 5명이 나섰다. 현장에는 구절초 두부전골, 정읍산 한우고기, 다슬기 수제비, 손칼국수 등 풍성한 향토 음식이 차려졌다. 여기에 구절초를 활용한 제과제빵, 쌍화차, 수수부꾸미, 왕실 배추김치 등 지역 특색이 강한 제품들이 더해져 하나의 음식 축제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정읍=김대환 기자

'여름 나들이 명소' 정읍 칠보 물테마유원지, 11일부터 운영

바디슬라이드·워터드롭 등 다양한 시설과 내부 인공폭포·체험 전시관 등 마련

정읍시가 여름철 피서객을 위한 칠보 물테마유원지 물놀이장을 지난 11일 개장했다.

시는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쾌적한 피서지를 제공하고자 다음 달 17일까지 물놀이장을 운영한다. 11일과 12일 주말 이틀 동안 임시로 문을 연 뒤 18일부터 상시 개장 체제로 전환한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다만 매주 월요일과 기상 특보가 발효되는 날에는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휴장한다.

이번에 문을 여는 물놀이장은 지하수를 소독해 사용하기 때문에 수질이 매우 깨끗하다.

방문객들은 바디슬라이드, 워터드롭, 워터터널, 워터스프레이 같은 다채로운 시설을 즐길 수 있다.

이용 요금은 정읍 시민은 성인 4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 2000원이며, 정읍 외 거주자는 성인 6000원, 청소년 5000원, 어린이 4000원이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1~3급) 및 보호자 1인,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그린카드 소지자, 전북자치도 명예도민소지자 및 가족, 전북사랑도민증 소지자는 50% 감면받을 수 있다. 물놀이를 넘어 역사와 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다는 점도 이곳의 큰 매력이다. 유원지가 자리한 칠보면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무성서원과 조선

전기 가사문화의 효시인 상촌곡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다.

시설 내부에는 상촌곡을 주제로 꾸민 동산과 인공 폭포가 마련되어 있어 고즈넉한 선비문화의 풍류를 느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물의 성질을 이용한 에너지 수차와 동진강 생태 수족관을 갖춘 체험 전시관도 함께 운영해 아이들의 학습 공간으로도 손색이 없다.

이학수 시장은 "방문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수질 관리와 안전 시설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칠보에서 가족과 함께 시원하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주민 주도형 농촌 복지거점 '활짝'

칠보행복이음센터, 취약계층 세탁 서비스·주거환경 개선 제공

정읍시 칠보행복이음센터가 주민 주도형 운영 체계를 구축해 취약계층 세탁 지원과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이곳은 거동이 불편한 홀로 사는 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을 위해 대형 이불 세탁을 돕고 있다. 이를 위해 섬진강댐노인복지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수거부터 세탁, 건조, 배달까지 일괄(원스톱)로 처리하는 '찾아가는 빨래방 연계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다.

지역 주민이 이웃의 어려움을 직접 덜어주는 '칠보 김반장' 활동도 활기를 띠고 있다. 참여자들은 전통 교재, 문고리 수리, 전기 차단기 점검 같은 일상 속 불편을 신속하게 고쳐준다. 이들은 지금까지 32개 마을 190가구를 지원해 농촌 지역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탤다.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인 '칠보행복TV'에 이러한 생활 서비스 현상이 소개됐다. 관련 영상을 접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봉사활동 동참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제3회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개최

변산비치파티·님의 뽕축제 등 안전관리계획 심의·의결

부안군은 2026년 제3회 부안군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를 지난 10일 군청 3층 중회의실에서 부안경찰서, 부안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실무위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2026 변산비치파티(7.24.~8.17./변산해수욕장 일원)와 2026년 님의 뽕축제(7.31.~8.3./부안댐 광장 일원) 등 주요 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인과 밀집 분산 대책과 응급의료체계 구축, 안전관리요원 적정 배치 및 동선 확보, 시설물·



교통·소방 안전 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군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안전관리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축제 개막 전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 합동 점검을 실시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완벽히 차단할 방침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 원천 차단 나서

가금농장 195곳 방역 점검

정읍시가 다가오는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을 막기 위해 8월까지 관내 전업 규모 가금농장 195곳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방역 실태 점검에 나선다.

시는 오는 10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두 단계에 걸친 점검 계획을 마련했다. 1차 점검은 8월까지 닭 3000마리와 오리 20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전업농가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 기간에 시는 △방역실, 전실, 울타리, 내부 영상망 등 법정 방역 시설의 설치와 정상 작동 유무 △출입구

차량과 사람 소독 시설, 신발 소독조 적정 운영 여부 △폐사물과 산란물 기록 보고를 비롯한 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특히 가금 계열사 계약·소속 농장은 정부 주도가 아닌 계열사를 통한 자체 점검으로 전환해 책임 방역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였다. 시는 현장에서 미흡한 점이 확인된 농가에 즉각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행 계획서를 제출을 방침이다.

시정 명령과 보완 조치를 거쳐 9월 경 2차 점검을 추가로 실시하며, 이때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